

오피니언

새해 아침에

호남이 눈을 감으면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포부로 당차게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한다. 검은 뱀의 해라는 계사년을 맞아, 모두가 마치 검은 물뱀이 물을 가르듯이 유유히 세파를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네팔에서 온 편지 (32)



박행순

자신을 '사미어'라고 불러달라는 41세의 네팔인 과학자(Dr. Sameer Dixit)를 만났다. 그는 미국에서 학사, 호주에서 석사

용꼬리가 아닌 닭 벋을 꿈꾸는 과학자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어린이 교통사고 만연...안전교육 새 시스템 필요하다

매년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상자도 많지만,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다

매년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상자도 많지만,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다

법조칼럼

날치기와 강도상해



최은식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록을 복사해 공소장 피명 및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는 일이다. 대부분 공소사실을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가운데 봉우리 정상에 서니, 표연히 세상사가 우습게 여겨지고 내 길을 나 홀로 가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고락이란 마음에 돌만한 일이 아니라

국립공원 무등산



만 아니라 직장 야유회도 무등산을 찾는 것이 일상이다시피 했다. 1980년 5월 이후에는 새해 첫날 무등산 중머리재나 서석대 등지에서 해맞이를 하며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기고

현대사회의 스포츠 정신



최승식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의 시대로 모든 길은 물질로써 해결된다고들 한다. 이는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양상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순 일이라는 결과를 중시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가치가 하락한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을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variou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different departments and locations.